1부 계시 —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성경론 2편 말씀하시는 하나님 · 말씀은 곧 하나님의 임재

프레임 2장 주권과 말씀 · 프레임 8장 하나님의 말씀이란 무엇인가? · 프레임 9장 다스리는 능력으로서의 하나님의 말씀 · 프레임 10장 의미 있는 권위로서의 하나님의 말씀 · 프레임 11장 인격적 임재로서의 하나님의 말씀 · 바빙크 4장 계시(단권 축약본, [82]·[86]·[91]·[94]–[97]·[103]–[104]만) · 신앙고백서 1.1 · 오웬 1장 첫머리(한 줄 연결만, 이 편 정리본에는 없음) · 신앙고백서 1장 1.1

> ❓ **하나님 말씀이라는 게 책이야, 사건이야, 하나님 자신이야?**

🧭 흐름 한눈에

이 편은 “하나님 말씀은 책인가, 사건인가, 하나님 자신인가”라는 질문을 프레임의 순서로 따라간다. 출발점은 말씀하시는 분이다. 말씀을 알려면 그분부터 알아야 한다. 성경의 하나님은 절대적이면서 인격적인 삼위 하나님이시고, 피조물과 구별되지만 가까이 계신 언약의 주이시며, 말씀하실 때도 주님이시다. 이어서 '책이냐'에 답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보다 넓다(신앙고백서 1.1의 '여러 방식').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고, 지금 우리에게 계시는 성경의 형태로 있다(바빙크). 다음으로 '사건이냐'에 답한다. 말씀은 창조·섭리·심판·구원을 일으키는 능력이다. 동시에 맹목적인 힘이 아니라 뜻이 담긴, 권위 있는 말이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자신이냐'에 답한다. 말씀은 궁극적으로 삼위 안에서 영원히 말씀하시는 하나님 자신이며, 말씀이 읽히고 들리는 곳에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계신다. 그래서 답은 셋 가운데 하나를 고르는 것이 아니라 셋이 하나로 묶여 있다는 것이다. 이 편이 세운 '성경의 말 = 주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이 뒤 편의 영감·자증성 논의의 바닥이 된다.

📜 절별 정리

📜 1. 말씀을 알려면 말씀하시는 분부터 (프레임 2장 · 프레임 11장 · 바빙크 4장)

프레임은 말씀이 무엇인지 묻기 전에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인지부터 세운다. 성경의 하나님은 존재하는 데에도, 무엇이 필요해서도 다른 누구에게 기대지 않으시는 '절대적인' 분이다. 동시에 아시고 사랑하시고 계획하시는 '인격'이시다. 더 나아가 성부·성자·성령으로 계셔서 영원 전부터 서로 사랑하신다. 브라만, 그리스의 운명, 아리스토텔레스의 부동의 동자, 헤겔의 절대정신 같은 비인격적 절대자는 우리를 알지도, 우리에게 말을 걸지도 못한다. 다신교의 신들은 인격적이지만 절대적이지 않아서 자기 말을 스스로 보증하지 못한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절대자'는 성경의 하나님뿐이다. 그분의 말은 참됨을 보여 줄 바깥 증인이 필요 없다. 프레임은 11장에서 같은 논점을 성경으로 보여 준다. 우상은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갈멜산 대결의 기준은 '응답하는 신'이었다. 바빙크는 다른 길로 같은 자리에 온다. 모든 종교가 신의 계시를 주장한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라면 사람의 연구로는 찾아낼 수 없다. 그분이 숨어 계신 곳에서 나와 스스로 알려 주셔야만 알려진다.

1. 말씀을 알려면 말씀하시는 분부터
2. 하나님은 절대적이면서 인격적이시다
3. 비인격 절대자는 말을 걸지 못한다
4. 우상은 벙어리,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5. 하나님은 스스로 알리셔야 알려진다(바빙크)

> **시편 115:5-7**
> 입이 있어도 말 못하는 우상. 말씀하심이 참 하나님의 표지다(프레임 11장)
>
> 5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6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7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 **시편 135:16**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하박국 2:18-20

말 못하는 우상과 성전에 계신 여호와의 대조(프레임 11장)

18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19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20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고린도전서 12:2

이방인이 섬기던 '말 못하는 우상'(프레임 11장)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 갔느니라

열왕기상 18:24

“불로 응답하는 신이 하나님”. 응답이 참 신을 가리는 기준이다(프레임 9장·11장)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

프레임 2장과 바빙크 4장 [82]는 이 대목에서 구절을 직접 들지 않는다(『신론』 요약, 종교학 자료)

📜 2. 창조주와 피조물, 그리고 언약의 주 (프레임 2장)

말씀하시는 절대자는 창조주와 피조물이라는 구분 속에서 세상과 관계하신다.

피조물이 되지 않으신다. 성육신에서도 신성과 인성은 섞이지 않으며(칼케돈 신조), 구원받은 사람도 신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신실한 피조물로서 섬기게 된다. 그러나 구분은 거리가 아니다. 우리는 매 순간 그분 안에서 살고 움직인다. 이 창조주는 '언약의 주'로서 관계하신다. 성경에서 '주'는 하나님이 대대로 기억하라고 주신 이름 야훼(여호와)를 옮긴 말이다. 출애굽의 큰일들도 사람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는 것이었다. 구약의 중심 고백은 “여호와가 주님이시다”, 신약은 “예수님이 주님이시다”이다. 주님과 종 사이의 이 관계를 언약이라 한다. 주되심에는 세 가지가 담겨 있다. 다스림(전능한 힘으로 창조 세계를 다스리심), 권위(최종 권위를 지닌 말씀), 임재(백성과 함께하심)다. 그 임재는 성막과 성전에서 예수님의 성육신으로, 다시 신자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이어진다.

1. 하나님은 절대적, 우리는 아니다
2. 반틸의 두 원: 구분되나 이어져 있다
3. 구분은 거리가 아니다
4. '주'는 언약의 이름 야훼다
5. 주되심 셋: 다스림·권위·임재

> **사도행전 17:28**
> 우리의 삶과 움직임과 존재가 매 순간 창조주께 달려 있다. 구분되지만 멀지 않다
>
>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 **출애굽기 3:15**
> 여호와는 대대로 기억할 하나님의 이름이다
>
>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 **신명기 6:4-6**

[4]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5]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6]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출애굽기 6:7

하나님이 행하시는 목적은 백성이 그분을 여호와로 알게 하시는 것이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출애굽기 7:5 · 출애굽기 7:17 · 출애굽기 8:22 · 출애굽기 10:2 · 출애굽기 14:4

재앙, 고센의 구별, 홍해 모두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는 것이다

출애굽기 7:5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출애굽기 7:17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네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나일 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출애굽기 8:22 그 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 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네가 알게 될 것이라

출애굽기 10:2 네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행한 표징을 네 아들과 네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출애굽기 14:4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로마서 10:9

구원의 고백은 “예수는 주”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고린도전서 12:3

“예수는 주”는 성령으로 하는 핵심 고백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빌립보서 2:11

결국 모든 입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 3. 주님은 말씀하실 때도 주님이시다 (프레임 2장 · 프레임 9장 서두)

프레임은 다스림·권위·임재를 '주권 속성'이라 부른다. 하나님이 주님이시기에 지니시는 성품이라는 뜻이다. 그는 이 셋이 삼위와 어떤 관계가 있다고 조심스럽게 제안한다. 대체로 성부는 계획을 정하시고(권위), 성자는 그 계획을 이루시며(다스림), 성령은 그 계획을 모든 사람과 사물에 적용하신다(임재). 그리고 이 세 겹 구조가 말씀론 전체의 뼈대가 될 것이라고 예고한다. 결론은 단순하다. 하나님이 피조물과 소통하신다면 주님으로서 소통하신다. 말씀하시는 동안 잠깐 주님 자리에서 내려오시는 일은 없다. 그러므로 그분의 말씀에는 세 가지가 함께 온다. 뜻을 반드시 이루는 능력, 듣는 이에게 의무를 지우고 사람이 판정할 수 없는 권위,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거하시는 임재다. 9장 서두에서 프레임은 한 가지를 더 짚는다. 말씀은 머리에 정보를 넣어 주는 '내용'이면서, 실제로 사건을 일으키는 '힘'이기도 하다. 아래 6~8절이 이 세 갈래를 하나씩 펼친다.

1. 주권 속성: 다스림·권위·임재

3. 말씀하실 때도 주되심을 내려놓지 않으심
4. 그래서 말씀엔 능력·권위·임재가 있다
5. 말씀은 정보이자 사건을 일으키는 힘

이사야 55:11

헛되이 돌아오지 않고 뜻을 이룬다. 말씀의 능력(프레임 2장·9장·11장에서 거듭 쓰임)

>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로마서 4:20

아브라함이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다. 따질 대상이 아닌 말씀의 권위

>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요한복음 1:1 ★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말씀 안의 임재(프레임 여러 장, 바빙크 4장은 1:3·1:14)

히브리서 4:12-13

살아 있어 속을 꿰뚫는 말씀, 그 앞에 숨을 것이 없다. 말씀 속 임재(프레임 2장·11장)

> 12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13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 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동안 그분의 주되심을 포기할 수 없다."
— 프레임

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 3문은 구약과 신약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믿음과 순종의 유일한 규범이라고 답한다. 프레임은 이 답이 옳다고 분명히 말하고, 그 핵심을 성경이 오늘 삶의 모든 영역에 충분한 계시라는 데서 찾는다. 그러나 성경이 하나님이 지금까지 하신 '유일한' 말씀이라고 하면 틀린 말이 된다. 정경에 들지 않은 바울의 편지가 있다. 하나님은 천사에게도, 눈과 바람에게도 명령하신다. 말씀으로 만물을 지으셨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리스도 자신이 말씀이시다. 그렇다고 성경이 낮아지지는 않는다. 시편 19편은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는 장면(1-6절) 바로 뒤에 기록된 “여호와의 율법”(7절)을 놓는다. 기록된 말씀이 자연을 다스리는 말씀만큼 힘 있고 믿을 만하다는 노래다. 신앙고백서 1.1도 같은 구도다. 하나님은 여러 방식으로 말씀하셨고, 그 뒤 그것을 온전히 글로 맡기셨으며, 이전 방식은 이제 그쳤다. 바빙크는 여기서 두 오류를 함께 막는다. 계시를 성경 기록과 똑같이 보면 성경을 그 뒤의 구속 역사에서 떼어 내게 된다. 반대로 “문자 말고 영”, “성경 말고 그리스도”라며 성경과 계시를 떼어 놓으면 훨씬 더 위험하다. 우리는 사도들의 말을 통해서만 그리스도께 닿기 때문이다.

1.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자 최고 권위
2. 그러나 하나님 말씀의 '전부'는 아니다
3. 시편 19편: 기록된 말씀도 자연 속 말씀만큼
4. 1.1: 여러 방식으로 말씀, 그 뒤 기록
5. 동일시도 분리도 금지(바빙크)

> **고린도전서 5:9**
>
> 바울이 고린도에 보낸 이전 편지. 정경에 없는 사도의 글이다
>
>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 **고린도후서 2:4**
>
> 눈물로 쓴 편지. 프레임은 이것도 정경 밖의 편지로 본다
>
>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천사들에게 하시는 말씀. 기록되지 않은 말씀의 예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시편 147:15-18

눈·얼음·바람에 내리시는 명령(프레임 8장·9장)

15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16 눈을 양털 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 같이 흩으시며 17 우박을 떡 부스러기 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의 추위를 감당하리요 18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시편 148:8

불·우박·바람이 말씀을 따른다(프레임 8장·9장)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그의 말씀을 따르는 광풍이며

창세기 1:3 · 창세기 1:6 · 창세기 1:9

"하나님이 이르시되". 창조는 말씀으로 이루어졌다

창세기 1:3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창세기 1:6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창세기 1:9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뭍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시편 33:6 · 시편 33:9 ★

말씀으로 하늘이 지어지고,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었다(프레임 8장·9장·11장, 바빙크 4장 33:9)

시편 33:6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육신이 되셨다(프레임 여러 장, 바빙크 4장)

요한복음 1:1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시편 19:1-6 · 시편 19:7 ★

자연의 말씀과 기록된 율법을 나란히 놓는다(프레임 8장·9장·11장, 바빙크 4장)

시편 19:1-6 1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2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3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4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5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6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함이여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시편 147:15-20

자연에 내리시는 명령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규례를 함께 둔다

15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16 눈을 양털 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 같이 흩으시며 17 우박을 떡 부스러기 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의 추위를 감당하리요 18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19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20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1:1 ★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하나님. 신앙고백서 1.1의 '여러 때에 여러 방식으로'와 같은 표현이다(바빙크 4장, 프레임 11장은 1:1-3)

요한복음 21:25

예수님이 하신 일이 다 기록되지 않았다. 계시와 기록을 동일시하는 오류를 반박한다(바빙크)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요한복음 17:20-21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믿는 사람들. 성경과 계시를 떼어 놓는 오류를 반박한다(바빙크)

20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21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요한일서 1:3

사도들과의 사귐이 곧 아버지와 아들과의 사귐이다(바빙크)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신앙고백서 1.1(우리말 번역, 이 편과 닿는 부분):

- "자연의 빛과 창조와 섭리의 일들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지혜와 능력을 드러내어 사람이 핑계하지 못하게 하지만,"
- "구원에 필요한, 하나님과 그분의 뜻에 대한 지식을 주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 "그러므로 주께서는 여러 때에 여러 방식으로 자신을 계시하시고 그 뜻을 교회에 선포하기를 기뻐하셨다."
- "그 뒤에는 진리를 더 잘 보존하고 전파하며, 육신의 부패와 사탄과 세상의 악의에 맞서 교회를 더 확실히 세우고 위로하시려고,"
- "그 뜻을 온전히 글로 기록하게 하셨다. 그래서 성경이 가장 필요하게 되었으니, 하나님이 이전에 자기 백성에게 뜻을 계시하시던 방식들은 이제 그쳤다."

"오직 성경만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갖고 있는 유일하고 확실한 계시다." — 바빙크

프레임은 '성경보다 넓은 그 이상'이 결국 하나님 자신이라고 말한다. 하나님은 삼위일체 안에서 영원히 소통하신다. 성부는 성자에게, 성자는 성부에게, 성부와 성자는 성령에게, 성령은 성부와 성자에게 말씀하신다. 그래서 소통은 하나님 본성에 속한 필수 속성이고, 하나님은 무엇보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말씀'이 하나님의 속성이면서 성자의 이름이기도 한 것은 모순이 아니다. '아버지 되심'과 '성부', '영'과 '성령'도 그렇다. 그러나 피조물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필연이 아니라 은혜에서 나온 자유로운 결정이다. 그 말씀은 창조된 매체를 거쳐 온다. 그래서 자연은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아니라 말씀이 전달되는 통로다. 이렇게 프레임은 말씀을 두 번 정의한다. ① 소통하시는 분으로서의 하나님 자신, ② 하나님이 피조물과 자유롭게 나누시는 소통 전체다. 그의 책은 주로 ②를 다룬다. 바빙크는 같은 구분을 계시에 적용한다. 모든 계시는 근원에서 하나님의 일이지만 늘 신현·말씀·행위·꿈 같은 수단을 거친다. 유한은 무한을 담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계시는 언제나 하나님이 몸을 낮추시는 은혜다. 그리고 하나님은 죄가 들어오기 전에도 “먹지 말라”는, 자연에서 추론할 수 없는 말씀을 주셨다.

1. 삼위 사이에 영원한 소통이 있다
2. 하나님은 무엇보다 말씀하시는 분
3.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은혜, 필연 아님
4. 자연은 말씀이 아니라 말씀의 통로
5. 모든 계시는 낮추시는 은혜(바빙크)

> **요한복음 1:1-14 ★**
> '말씀'은 제2위격의 이름이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며 육신이 되셨다

> **시편 147:15-18 · 시편 148:8**
> 자연은 명령을 받아 따르는 쪽이다. 말씀 자체가 아니라 통로다(프레임 8장의 정리)
>
> **시편 147:15-18** 15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16 눈을 양털 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 같이 흩으시며 17 우박을 떡 부스러기 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의 추위를 감당하리요 18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요한복음 5:17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신다. 그래서 모든 계시는 근원에서 하나님의 일이다(바빙크)

>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창세기 2:16-17

타락 전의 명령. 자연에서 추론할 수 없는 말씀 계시다(바빙크)

> 16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 네가 임의로 먹되 17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요한일서 3:2

영광 중에 그분을 뵐 때도 창조주와 피조물의 차이는 남는다(바빙크)

>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 6. 다스리는 능력 —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프레임 9장 · 바빙크 4장)

세 주권 속성 가운데 첫째는 능력이다. 성경의 첫 말씀은 사람이 아니라 아직 있지도 않은 것을 향했다. “빛이 있으라” 하시자 빛이 생겼다.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이다. 창조 뒤에도 같은 말씀으로 눈과 바람과 계절을 붙드신다(섭리). 그 말씀은 죄인에게는 불과 칼과 바위를 부수는 방망이로 온다(심판). 믿는 이에게는 늙은 사라의 출산, 백부장 종의 치유, 복음의 능력으로 온다(구원).
프레임은 히브리어 '다바르'가 '말'과 '일'을 함께 뜻할 수 있다고 짚는다. 같은 말씀이 어떤 이는 살리고 어떤 이는 굳게 한다(이사야 6장). 프레임은 그 차이를 듣는 사람의 저항력 차이로 설명하는 일부 루터주의자의 견해(프레임의 요약)를 거절한다. 그렇게 보면 말씀이 전기나 중력 같은 비인격적 힘이 되기 때문이다. 누가 믿을지는

자신의 전능이다. 하나님은 입으로 하신 말씀을 손으로 이루신다. 바빙크도 큰 그림에서 같은 말을 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 행동이고, 그분의 행동은 곧 말씀이다.

1. 첫 말씀은 없는 것을 향했다
2. 창조·섭리·심판·구원 모두 말씀으로
3. 같은 말씀이 살리기도 굳게도 한다
4. 말씀은 기계적 힘 아닌 인격적 능력
5. 말씀의 능력 = 하나님의 전능

> **창세기 1:3**
> “빛이 있으라”. 말씀만으로 존재가 생겼다(프레임 8장·9장)
>
>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 **로마서 4:17**
>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
>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 **시편 33:9 ★**
> 말씀하시매 이루어졌다. 말씀과 결과 사이에 틈이 없다(프레임 9장, 바빙크 '말씀이 곧 행동')

> **요한복음 1:3 ★**
> 만물이 말씀으로 지어졌다(프레임 9장·11장, 바빙크 4장)

> **히브리서 1:3 ★**
> 아들이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신다(프레임 9장, 바빙크 4장)

> **시편 119:89-91**
> 말씀이 하늘에 굳게 서고 땅이 그 규례대로 선다. 섭리
>
> 89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90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사오니 91 천지가

마태복음 8:27

바람과 바다도 순종한다. 예수님의 말씀이 지닌 다스림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예레미야 23:29

불 같고 바위를 부수는 방망이 같은 말씀. 심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 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창세기 18:14 · 누가복음 1:37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적을 말씀에 돌린다(프레임 9장·10장·11장)

창세기 18:14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누가복음 1:37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누가복음 7:7-9

백부장의 “말씀만 하사”. 말씀의 치유 능력을 믿는 믿음

7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8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9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로마서 1:16

복음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이사야 6:10

말씀이 마음을 굳게 하기도 한다. 양날의 말씀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로마서 9:1-28

반응의 차이는 하나님의 주권적 결정이다

1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3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4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 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5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에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6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7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네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

이사야 55:11

헛되이 돌아오지 않는다. 9장의 결론 구절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역대하 6:15

입으로 하신 말씀을 손으로 이루신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되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 7. 의미 있는 권위 — 맹목적 힘이 아니라 뜻이 담긴 말 (프레임 10장 · 바빙크 4장)

권위 있는 말이란 듣는 사람 안에 의무를 만드는 말이다. 하나님 말씀의 권위는 믿음과 행동을 넘어 감정, 우선순위, 기쁨과 슬픔까지 미치고, 그 위에 다른 권위가 없다. 그 권위는 말의 '의미', 곧 알아들을 수 있는 내용에서 나온다. 하나님은 창조 때 일만 일으키신 것이 아니다. 낮·밤·하늘·땅·바다에 이름을 붙이시고, '좋았더라'고 평가하시고, 사람의 본성과 사명을 말로 정하셨다. 그래서 프레임은 두 반쪽짜리 견해를 함께 비판한다. 하나는 성경을 뜻은 통하지만 사람이 평가할 인간의 말로 본 구 자유주의(리츨·하르낙·헤르만)다. 다른 하나는 신정통주의(바르트·브루너·불트만)인데, 프레임의 평가로는 말씀을 능력의 사건으로는 잘 보았지만 내용을 담은 언어라는 점은 부인했다. 성경 이야기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사람이 응답하는 언약의 대화다. 아담과 하와에게는 하나님의 말과 뱀의 말 사이를 판정할 제3의 권위가 없었다. 노아는 홍수 경고를 확인할 수단 없이 “명하신 대로 다 준행”했다. 아브라함은 모든 증거가 반대를 가리킬 때도 약속을 믿었다. 절정은 예수님이다. 요한복음 12:47-50에 따르면 마지막 날 사람을 심판하는 것은 그분의 말씀이다. 무엇을 말할지(내용)와 어떻게 이를지(표현)를 아버지께서 정하셨다. 그러므로 그 말씀을 비켜 '예수님 자신'이나 '핵심 내용'에 호소할 수 없다. 바빙크는 다른 상대를 놓고 같은 방향으로 말한다. 계시를 '교리가 아니라 생명의 전달'로만 본 슐라이어마허식 이해에 맞서, 그는 죄가 지성을 속이기 때문에 계시는 생명의 전달이면서 진리의 선언이고, 그래서 교리를 낳는다고 답한다.

1. 권위 = 듣는 이 안에 의무를 만드는 힘
2. 권위는 말의 의미(내용)에서 나온다
3. 자유주의는 능력을, 신정통은 의미를 놓침
4. 아담·노아·아브라함: 판정할 잣대 없음
5. 예수님 말씀 너머로 호소할 수 없다

> **창세기 1:5 · 창세기 1:8 · 창세기 1:10**
> 이름을 붙여 의미를 정하신다

창세기 1:8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창세기 1:10 하나님이 뭍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세기 1:27-28

사람의 본성과 사명을 말씀으로 정의하신다

27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28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3:1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느냐”. 사탄이 말씀을 의심하게 한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창세기 3:4-5

말씀을 정면으로 반박한다. 최고 권위를 다투는 두 말

4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5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창세기 6:22

명하신 대로 다 준행했다. 검증 수단 없는 순종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로마서 4:16-25

몸이 죽은 것 같아도 약속을 믿은 아브라함(프레임 2장·10장)

16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17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18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19 그가 백 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20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21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

요한복음 12:47-50

말씀이 마지막 날 심판한다. 내용과 표현을 아버지가 정하셨다

47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48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49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50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7:24-29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의 집, 예수님의 말씀이 제자도의 기준이다

[24]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25]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치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26]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27]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치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28]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매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29]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요한복음 6:63

내가 한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프레임 10장·11장)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히브리서 1:1-4 ★

아들 안에서 하신 말씀으로 계시가 완성되었다. 계시를 도덕으로 줄이는 견해에 대한 바빙크의 근거(프레임 11장은 1:1-3)

📜 8. 인격적 임재 —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신다 (프레임 11장 · 바빙크 4장)

셋째 주권 속성은 임재다. 프레임은 먼저 추론으로 시작한다.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 꼭 있는 성품이고, '말씀'은 성자의 이름이며,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다. 그러니 하나님과 말씀은 늘 함께 있다. 그러나 그는 이것이 추론에 그치지 않고 성경이 직접 하는 말이라며 증거를 쌓는다. 신명기는 하나님이 가까이 계심을 공의로운 율법과 한 쌍으로 묶는다. 그리고 명령이 하늘이나 바다 건너가 아니라 네 입과 네 마음에 있다고 말한다. 바울은 이 말을 받아, 그 가까운 말씀이 곧 가까이 계신 그리스도라고 한다. 말씀에는 언제나 성령이 함께하신다. 창조 때 수면 위에 계신 영, '말씀'과 '입 기운'을 나란히 둔 시편 33:6, 영이요 생명인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숨으로 된

4:12에서 4:13으로 넘어갈 때 주제가 바뀐다는 표시가 없다는 점이 이를 보여 준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그의 말씀을 찬송”하고, 이것은 우상숭배가 아니다. 다만 종이와 잉크 같은 매체는 피조물이므로 숭배해서는 안 된다. 요한복음 1:1의 '태초에'는 창세기 1:1을 떠올리게 한다. 그러므로 “말씀은 하나님”이라는 선언은 그리스도의 신성과 함께 창조하는 말씀의 신성도 가리킨다. 바빙크도 하나님이 가까이 오시는 길을 정리한다. 신현은 성막과 성전을 거쳐 육신이 되신 말씀에서 절정에 이르고, 성령으로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 되며, 새 예루살렘에서 완성된다. 프레임이 2장에서 그린 '성막 → 성육신 → 성령'과 겹치는 그림이다.

1. 하나님의 가까움 = 말씀의 가까움
2. 말씀과 성령은 늘 함께 다닌다
3. 말씀은 하나님만의 성품과 일을 지님
4. 말씀 찬양은 하나님 찬양, 매체 숭배는 금지
5. 말씀이 들리는 곳에 하나님이 계신다

> **신명기 4:7-8**
> 하나님의 가까우심과 공의로운 율법이 한 쌍이다
>
> 7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8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 **신명기 30:11-14**
> 말씀이 네 입과 마음에 있을 만큼 가깝다
>
> 11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12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요 13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라 14 오직 그 말씀이 네게 매우 가까워서 네 입에

로마서 10:6-8

말씀의 가까움이 곧 그리스도의 가까움이다

6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네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7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8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네게 가까워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창세기 1:2

말씀으로 창조하실 때 수면 위에 계신 영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시편 33:6

'말씀'과 '입 기운(영)'이 함께 창조한다(시편 33편은 4절에서 ★)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요한복음 16:13 ★

성령은 들은 것을 말씀하신다(프레임 11장, 바빙크 4장)

데살로니가전서 1:5

복음이 말로만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으로 이르렀다(프레임 9장·11장)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디모데후서 3:16 ★

성경은 하나님의 숨에서 나왔다(프레임 11장, 바빙크 4장은 벤게 주석을 통해)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 한 예언(프레임 11장, 바빙크 4장)

시편 119:89 · 시편 119:142 · 시편 119:160

말씀의 영원함과 진리됨. 신적 속성

시편 119:89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시편 119:142 주의 공의는 영원한 공의요 주의 율법은 진리로소이다

시편 119:160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이오니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들은 영원하리이다

히브리서 4:12-13

말씀의 일이 곧 하나님의 일이다(프레임 2장·11장)

12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13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 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시편 56:4 · 시편 56:10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라”. 말씀을 찬양하는 근거

시편 56:4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시편 56:10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요한복음 1:1 · 요한복음 1:3 ★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말씀으로 지어졌다. 이 편의 결론 구절

요한복음 1:1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요한복음 1:14 · 요한계시록 21:3

신현의 절정(성육신)과 완성(하나님의 장막이 사람과 함께)(바빙크)

요한복음 1:14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계시록 21:3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말해지고 읽혀지며 들려지는 곳마다 하나님 자신이 거기에 계신다." — 프레임

🗣️ 다섯 목소리

책	이 편의 질문에 대한 답 (한두 문장)	특별히 강조하는 것	비워 둔 것
프레임 『성경론』	셋 다 맞다. 다만 순서가 있다. 말씀은 궁극적으로 소통하시는 하나님 자신이고, 창조·섭리·구원을 일으키는 사건의 힘이며, 성경은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발화(말)들이다.	말씀의 능력·권위·임재. 언약의 주는 말씀하실 때도 주님이시다. 말씀은 인격적 임재다.	계시가 역사 속에서 어떻게 펼쳐져 성경이 되었는지, 일반·특별계시의 체계는 이 편 재료에서 짧다. 바빙크와 신앙고백서가 메운다.
바빙크 『개혁파	하나님은 스스로 알리셔야만 알려지고, 그	계시의 역사적·유기적 성격.	이 편 정리본(4장) 범위에서는 '말씀 =

책	이 편의 질문에 대한 답 (한두 문장)	특별히 강조하는 것	비워 둔 것
	완결되었다. 지금 우리에게 계시는 오직 성경의 형태로 있다.	분리하지도 말 것. 계시는 생명이자 진리다.	다루지 않는다. 프레임이 메운다.
워필드 『성경의 영감과 권위』	이 주제를 다루지 않음(이 편 재료 기준). 프레임이 메운다.	—	정리본들이 가리키는 수록 논문 '그것이 말한다, 성경이 말한다,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영감을 다루는 뒤 편에서 쓴다.
신앙고백서 1.1	하나님은 여러 때에 여러 방식으로 자신을 계시하셨고, 그 뒤 그 뜻을 온전히 글로 맡기셨다. 이전 방식들은 이제 그쳤다.	계시의 다양함과, 그래서 성경이 가장 필요하다는 것.	말씀의 본질(능력·권위·임재, 말씀 = 하나님 자신)에 대한 신학적 설명. 프레임이 메운다.
오웬 『성경의 신적 기원과 자증성에 관한 논고』	이 편 재료에 정리본이 없다. 초점 메모에 따라 1장 첫머리의 출발점, 곧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사실만 연결해 둔다.	(오웬 정리본으로 확인 필요)	이 편의 질문(말씀의 본질)은 프레임이 메운다. 오웬의 몫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를 다루는 뒤 편이다.

- 프레임은 질문의 세 항목(책·사건·하나님 자신)을 하나의 틀로 묶는다. 근원은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말씀이 일으키는 사건, 우리 손에 주어진 기록된 말씀이다.
- 바빙크는 같은 내용을 역사의 축으로 보여 준다. 말과 행위로 온 계시가 그리스도에서 완결되고 성경으로 남았다. 두 사람 모두 “성경 말고 그리스도”, “문자 말고 영”이라는 분리를 가장 경계한다.

채운다.

- 워필드와 오웬은 이 편에서 쉬지만, 이 편이 세운 '말씀 = 주님이 직접 말씀하심'은 워필드의 영감론과 오웬의 자증성 논의가 서 있는 바닥이다.

⚖️ 오해와 반론

📖 용어

계시
숨어 계신 하나님이 스스로 자신과 자기 뜻을 사람에게 알려 주시는 일.

영감
하나님이 성경 저자들을 감동하셔서 그들이 쓴 글이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신 일.

정경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되어 교회가 믿음과 삶의 규범으로 받는 성경 66권의 목록.

충족성
성경이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의 구원·믿음·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담고 있어서 더 보탤 계시가 필요 없다는 성질.

절대 인격체
아무것에도 기대지 않는 절대적인 분이면서, 동시에 알고 사랑하고 말씀하시는 인격이신 하나님을 가리키는 프레임의 표현.

창조주
피조물 구분 — 하나님과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본질이 달라서 결코 섞이거나 서로 바뀌지 않는다는 원리. 구분이지 거리가 아니다.

언약의 주
하나님이 야훼라는 이름으로 피조물과 주님-종의 관계를 맺으시고 다스림과 약속,

주권 속성

하나님이 주님이시기에 지니시는 세 성품. 다스림(통제하는 능력), 권위(따라야 할 말씀), 임재(함께하심)이며, 프레임은 이 셋으로 말씀의 본질을 설명한다.

인격적 임재

하나님이 공기처럼 퍼져 계신다는 뜻이 아니라, 인격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마주하고 함께하신다는 뜻. 프레임은 말씀이 바로 이 임재라고 말한다.

매개적 계시

하나님이 본질을 그대로 보이시지 않고 말씀·현상·사람 같은 수단을 거쳐 알리시는 계시. 바빙크는 모든 계시가 이렇다고 본다.

💬 청년의 삶으로

✅ 이 편의 결론

-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면 말씀하시는 분부터 알아야 한다. 그분은 절대적이면서 인격적인 삼위 하나님이시고, 피조물과 구별되지만 가까이 계신 언약의 주이시다.
- 책이냐고 묻는다면, 말씀은 성경보다 넓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고,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시는 성경으로 있다.
- 사건이냐고 묻는다면, 말씀은 만물을 창조하고 붙들고 심판하고 구원하는 능력이다. 동시에 뜻이 담겨 우리에게 의무를 지우는 권위 있는 말이다.
- 하나님 자신이냐고 묻는다면, 그렇다. 말씀은 궁극적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 자신이며, 말씀이 들리는 곳에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계신다.
- 그래서 셋 중 하나를 고르는 것이 아니다. 주님은 말씀하실 때도 주님이시고, 우리는 그 말씀을 심판하는 자리가 아니라 그 말씀 앞에 서는 자리에 있다.

📚 이 편의 책별 정리 노트

- 프레임 · 하나님의 말씀이란 무엇인가?
- 프레임 · 다스리는 능력으로서의 하나님의 말씀
- 프레임 · 의미 있는 권위로서의 하나님의 말씀
- 프레임 · 인격적 임재로서의 하나님의 말씀
- 바빙크 · 4장 계시

빛다방 학습 노트 · 존 프레임 『성경론』(P&R Korea·CLC), B. B. 워필드 『성경의 영감과 권위』(CLC), 헤르만 바빙크 『개혁파 교의학』(새물결플러스)의 논증 구조를 우리 말로 정리한 것입니다(번역서 원문 미전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1647)와 존 오웬의 논고(1659)는 공유 저작물로 우리 번역입니다. 성경 장절은 개역개정 기준입니다. youtube.com/@빛다방